

도시 재생을 위한 자양분: 공공디자인

2008

디자인진흥원사

- 한국디자인진흥원 비전 선포
- 『designdb+』발간
- 『이탈리아 디자인 나우전』 개최
- 디자인학과 계약 운영체 및
캡스톤 디자인 사업 실시
- 코리아 디자인 포럼 2008 개최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개원
- 『디자인코리아』 광저우 개최
- 해외 한인디자이너 네크워크
온라인카페 개설
- 제4차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
(2008~2012) 공고
- 디자인트렌드 컨텐츠개발사업 실시

한국 디자인사

- 근현대디자인박물관 개관
-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발표
- 한국디자인문화재단 설립
-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창립
- 제1회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 서울시 가로판 매대 표준디자인 개발

한국 사회사

- 국보 1호 승례문 화재로 소실
- 이명박 정부 출범
- 4대강 사업 시작
- 조선산업 세계 시장 점유 50% 초과
- 한국 최초 우주비행사 이소연,
우주 비행
- 세계 금융 위기

정부의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이 발표된 이후, 지역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처 간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초기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디자인 추진 과정은 지엽적인 개발로 인해 전체적인 이미지 통합이나 통일성이 결여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불균형하고 낙후된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을 찾고, 전문적인 컨설팅과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동력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융복합된 통합적인 컨설팅 지원에 대한 요구 역시 점점 커져갔다.

KIDP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2008년부터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공공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추진 시스템에 대한 전략과 로드맵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과 기관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공공디자인, 공공 랜드, 도시 설계, 마케팅, 리서치, 색과 빛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통해 맞춤형 통합 컨설팅을

제공했다. 지역 이미지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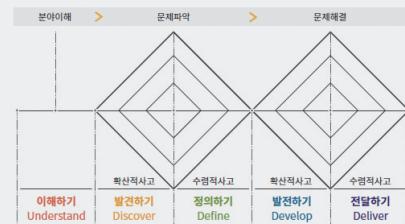
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인전문회사를 모집하고, KIDP 인력과 지역 전문가 등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한 후, 현장 진단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이어서 워크숍을 거쳐 실제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토클 컨설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도시 개발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급속한 성장 위주 중심에서 이제 도시의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도시재생이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구도심의 경제적 활력을 회복시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KIDP는 2018년에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되었다. 디자인이 범국가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자양분으로서 사업 현장과 도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었다. 2018년 전국 9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을 운영하였고, 2019년에는 15개 팀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공공디자인 사업은 디자인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과 도시재생의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 | 공공서비스디자인 단계

더블 디아이몬드 모델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의 '더블 디아이몬드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 가운데 사고가 확산되고 수렴되는 모습을 두 개의 디아이몬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 방법론에서는 찾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와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디자인 '더블디아이몬드 모델']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사고법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여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고의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는 일련의 흥정하게 됩니다.

-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기본 틀넘는 다른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 수렴적 사고를 통해 문제의 핵심을 찾아냄으로써 최선의 해결안을 개발합니다.

더블다이아몬드프로세스